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한나라 기행(韓の国紀行)」에 재현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에 관한 연구

이동민*

A Study on Ryōtarō Shiba's Gaze toward Korea as Represented in *Kara no Kuni Kikō* (「韓の国紀行」)

Dong-min Lee*

요약 : 본 연구는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한국 기행문인 「한나라 기행(韓の国紀行)」(이하 「한나라 기행」)이 한국에 대한 시선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한나라 기행」의 텍스트로부터 문학지리 관련 주제어를 377개 도출하였다. 그런 다음 「한나라 기행」에 재현된 시바 료타로의 각 방문지별 시선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지별 주제어 중에서도 중요성이 높은 핵심 개념을 선정하고, 이들 간의 의미연결망을 구성하였다. 의미연결망의 맥락적·심층적 의미는 John Urry의 여행자의 시선 및 탈식민주의 지리학의 관점을 적용하여, 현상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해석하였다. 「한나라 기행」에 재현된 시바 료타로의 한국에 대한 시선이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첫째, 「한나라 기행」은 한국의 장소와 경관에 대한 인류학적 시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행기이다. 시바 료타로의 한국 방문은 그 동기부터가 일본인의 원류를 찾겠다는 인류학적 측면이 다분했다. 그리고 여행지마다 그가 눈여겨 본 장소와 경관 역시, 고대 일본인과 일본 문화의 원류 및 한일 간 교류의 공간적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둘째, 「한나라 기행」에는 한국의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농촌 경관과 인간미 넘치는 한국인에 대한 낭만적인 시선도 재현되어 있었다. 셋째, 「한나라 기행」에 재현된 한국에 대한 시선은 탈식민주의 지리학적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측면도 다분히 있다. 즉, 한국을 존중하는 시선과 한국을 오리엔탈리즘적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본 시선이 혼재되어 있었다. 시바 료타로는 일본의 '국민 작가'라 불릴 정도로 일본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는 작가인데다, 한국에 대한 이 같은 시선은 다수의 일본인들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한나라 기행」에 재현된 이러한 시선의 문화지리학적 의의는 간과하기 어렵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본 문학, 나아가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시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주요어 : 기행문, 문학지리, 「한나라 기행(韓の国紀行)」,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gaze toward Korea represented in *Kara no Kuni Kikō* (「韓の国紀行」), a piece of travel literature written by Ryōtarō Shiba. To conduct the analysis, 377 geographic concepts were deduced from the text of *Kara no Kuni Kikō*. Keywords from each place or region where Ryōtarō Shiba visited were extracted from the geographic concepts and were then constructed into semantic networks, through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gazes toward those places were analyzed. Contextual and sophisticated meanings of the semantic networks were interpreted using the method of phenomenology. The interpretation was based on the theories of tourist gaze, developed by John Urry, and postcolonial geography. The characteristics of Ryōtarō Shiba's gaze toward Korea as represented in *Kara no Kuni Kikō* are as follows: First, anthropological gaze was the majority among the gazes toward places and landscapes of Korea represented in *Kara no Kuni Kikō*. The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ldmin1988@cku.ac.kr)

main motivation of Ryōtarō Shiba's travel to Korea was a kind of anthropological motivation to find the origin of Japanese people and Japanese ancient history. Moreover, he gazed at places and landscapes of Korea as a spatial representation of the origin of Japanese people and Japanese ancient history. Second, *Kara no Kumi Kikō* represented a romantic gaze toward the honest and kind-hearted Korean people and the rural landscape. Third, the gazes toward Korea represented in *Kara no Kumi Kikō* implied complex meanings from the perspective of postcolonial geographies. More concretely, the gazes were a mixture of respect for Korean society and culture and a negatively distorted orientalist gaze. Ryōtarō Shiba is a so-called "Japanese national writer" with a great influence on the Japanese people, and the characteristics of his outsider's gaze are probably indicative of a gaze common to the Japanese people rather than of his own private gaze. Therefore, Ryōtarō Shiba's gaze toward Korea represented in *Kara no Kumi Kikō* holds significant literary geographical mean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people's gazes toward Korea as well as that represented in Japanese literature.

Key Words : Travel literature, Literary geography, *Kara no Kumi Kikō* (『韓の国紀行』), Ryōtarō Shiba, Gaze toward Korea

I. 서론

본 연구는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 1923-1996)의 한국 기행문인 「한나라 기행(韓の国紀行)」(이하 「한나라 기행」)¹⁾의 한국 경관 재현 양상의 특징을 분석하여, 일본인이 한국이라는 공간을 인식하는 양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학 작품에 재현된 장소나 경관의 이미지는 저자 개인의 주관적 관점을 넘어, 어떠한 시대나 사회에 속해 있는 인간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관, 인식, 시선 등을 반영한다(Hones, 2008; Saunders, 2010; 김창환·정해용, 2017; 오동훈·신정엽, 2017; 이지나·정희선, 2018). 더욱이 여행기는 여행자가 관찰하고 경험한 여행지의 경관, 장소성, 이동경로, 여행자의 여행지에 대한 시선 등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문학적으로는 물론 지리학적으로도 그 의미를 간과하기 어렵다(Saunders, 2010; 이지나·정희선, 2017; 정희선, 2018). 일본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해는 한국에 대한 일본인이라는 외부자의 시선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입장에서 연구할 가치가 크다(Knudsen *et al.*, 2007; 小針進, 2011; 한영균, 2014; 이지나·정희선, 2017; 박성신, 2018). 이러한 점에서 「한나라 기행」은 한국의 경관과 장소에 대한 일본인의 시선을 재현한 텍스트로서 문학지리적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한나라 기행」은 시바 료타로에 의해 집필된 한국 여행기라는 점에서, 문학지리적 텍스트로서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시바 료타로는 일본

에서 문학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사회문화적인 영향력도 큰 인물이기 때문이다. 전국시대, 메이지 유신기 등 일본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하는 역사소설을 주로 집필한 시바 료타로는, 기존의 역사소설과는 차별화되는 서술 방식을 통하여 역사소설 집필 양식의 새 지평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역사인식 및 국가관, 세계관 등에 많은 영향을 주어 왔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더욱이 그의 소설 가운데 상당수는 메이지 유신기 등 한일관계,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 등과도 관계 깊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만큼, 시바 료타로와 그의 문학세계에 대한 이해는 한국 사회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나라 기행」은 일본인이 한국의 경관과 장소를 바라보고 재현하는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로서 문학지리적인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²⁾

본 연구에서는 「한나라 기행」에 재현된 한국의 장소와 공간에 대한 시선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우선 시바 료타로 문학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한나라 기행」의 구성 및 특징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한나라 기행」의 텍스트에 재현된 한국에 대한 시선의 지리적 분석을 위해 텍스트로부터 지리 주제를 선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행지별로 시바 료타로의 시선과 관련된 핵심 개념들을 추출하고, 이들 간의 의미연결망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서 시바 료타로가 여행지별로 무엇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한나라 기행」에 재현된 시바 료타로의 한국에 대한 시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II. 시바 료타로 문학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한나라 기행」의 구성

1. 시바 료타로 문학의 특징과 사회문화적 의미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는 사마천(司馬遷)을 본받았다는 취지로 지은 필명으로, 본명은 후쿠다 데이이치(福田真一)이다. 2차 세계대전에 학병으로 참전했다가 종전 후 신문기자로 재직하다 소설가가 된 그는, 1960~80년대에 「료마가 간다(竜馬がゆく)」, 「나라 훔친 이야기(国盗り物語)」, 「언덕 위의 구름(坂の上の雲)」 등 전 국시대, 메이지 유신기와 같은 격동기를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을 집필하면서 일본의 ‘국민작가’라 불리는 명성을 얻었다.

시바 료타로의 역사소설은 저자가 소설 중간 중간에 여담 형식으로 개입하여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비평 및 비판을 가하는 일종이 저널리즘 내지는 역사학 연구 자료와 유사한 서술방식을 특징으로 하며, 이를 통해서 일본 역사소설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이복임, 2009; 大本泉, 2018). 그는 타계한지 20년 이상 지난 오늘날에도 일본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³⁾ 그의 소설이 가지는 문학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조명과 연구 역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시바 료타로의 영향력은 문학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의 소설은 상기한 특성으로 인해, 일본인들의 역사인식에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일례로 「료마가 간다」는 사카모토 료마(坂本竜馬, 1836-1867)⁴⁾의 업적을 재조명하여 오늘날 그가 일본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게 만들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언덕 위의 구름」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메이지 유신을 일본인들의 노력으로 근대화 성공을 이룩한 역사적 진보의 시기로 인식케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Vinh, 2004; 大本泉, 2018). 이러한 점에서, 그의 서술 기법 및 작중에 투영된 역사인식은 ‘시바 사관(司馬史觀)’이라고도 일컬어진다(中村政則, 1997; 全彰煥, 2011; 이복임, 2013).

시바 료타로의 작품은 한일관계나 일본인의 한국관 등에 대한 연구 주제로 분석되어 오기도 하였다(全彰煥, 2011; 이복임, 2013). 그런데 한국 학계에서는 그의 작품이 러일 전쟁의 미화, 우경화 성향 등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신인섭, 2010; 이복임, 2013).

이 같은 해석은 和田春樹(2010; 2012) 등 일본의 (주로 ‘진보적’으로 분류되는) 일부 학자들과도 공통된다. 실제로 「언덕 위의 구름」 등 메이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역사소설 및 ‘시바사관’은, 한·일 양국의 학계로부터 메이지 시대에 대한 과도한 미화 및 전쟁, 식민지 쟁탈전, 민주주의 발전의 저해와 같은 문제점의 은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온 측면이 있다고 비판받고 있기도 하다(潮匡人, 2007; 中塚明, 2009b; 和田春樹, 2010; 이복임, 2011; 박현옥 역, 2014; 허석, 2016).

하지만 시바 료타로를 제국주의를 미화하거나 한국을 비하기만 한 인물로 치부하기에는 곤란한 측면도 많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언덕 위의 구름」은 일본의 러일 전쟁 승리 과정 및 이후의 역사 전개에 대한 비판적인 서술도 담고 있으며, 제주도 기행문인 「탐라 기행(耽羅紀行)」에는 태평양전쟁기 일본 군부에 대한 비판과 일제의 조선 강점에 대한 반성도 언급되어 있다(高橋誠一郎, 2003; 2005; 潮匡人, 2007; 전창환, 2011). 시바 료타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쇼와(昭和, 1926-89)시대 초기의 일본 군부를 태어나서는 안 될 악마를 가리키는 ‘귀태(鬼胎)’에 비유하기까지 하면서 극렬하게 비난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반전사상 및 반군국주의적 태도는 「탐라 기행」을 비롯한 그의 작품 다수에 반영되어 있다(司馬遼太郎, 1999; 高橋誠一郎, 2005; 전창환, 2011). 더불어 본 연구의 주제인 「한나라 기행」은 일본 사회에서 배신자로 여겨지며 금기시되던 항왜(降倭), 즉 임진왜란 당시 조선 측에 귀순한 일본군이었던 김충선(金忠善, 1571-1642)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박경하, 2015). 요컨대 시바 료타로는 일본 문학사에서 중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한국인식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는 작가이지만, 한국에서는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왜곡되거나 극단적인 관점에서 접근되는 측면이 다분하다고도 할 수 있다(전창환, 2011). 이러한 점에서, 시바 료타로 문학의 사회적 의미를 고찰하는 일은 한국 사회에서도 시의성과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한나라 기행」의 구성과 특징

「한나라 기행」은 시바 료타로가 1971년부터 그가 사망한 1996년까지 주간 아사히(週刊朝日)에 연재한 연작 기행문 「가도를 가다(街道を行く)」의 한국편⁵⁾으로,

표 1. 「한나라 기행」의 구성

부	여행지	장	주요 내용
가야 여행	일본	한국으로	- 한국 여행의 동기와 목적 및 입국 과정
	부산	부산의 왜관, 왜성과 왜관, 부산에서, 이순신, 가락국의 옛 땅	- 부산 왜관 유적 탐방 ⁷⁾ - 용두산 공원 방문 및 이순신 장군 동상 - 고대 가야 영역과 일본계 토착민
	김해	김해의 하구, 수로왕릉	- 김해 및 김수로 왕릉 방문 - 한국인의 본관 및 동본(同本) 의식에 대한 기술
신라 여행	경주	신라국, 경주 불국사, 불국사 솔숲의 들놀이, 일곱 명의 영감님들	- 경주 방문 및 들놀이 구경 - 들놀이를 보며 떠올린 고대 일본의 가무(歌舞) 문화 - 들놀이에서 받은 환대에 대한 감동
	우륵동	모하당(慕夏堂)으로, 왜, 사야가의 항복, 김충선, 우륵의 마을, 양반, 사야가의 실재	- 우륵동 모하당 방문과 양반 집성촌 - 항왜 출신 조선군 장군 김충선(사야가) 및 조명 - 김충선의 문집으로 알려진 모하당문집 소개 및 조명 - 한국 사회의 유교 전통 및 일본의 무가(武家) 전통과 비교
백제 여행	대구/왜관	대구의 안마사, 뇌물에 관하여, 낙동강 연안	- 대구 호텔의 바가지 안마요금과 불친절한 호텔 직원 - 호텔 직원과 안마사 간의 부조리한 관계 - 왜관을 방문 및 낙동강
	부여	다시 왜에 대하여, 이석호 선생, 백제불, 환영의 도시, 일본의 등장, 백촌강(白村江)의 해전, 평제탑	- 고대의 동북아사 및 백제와 일본의 교류사 - 부여의 문화재와 경관, 백촌강 - 신라와 백제의 문화적 차이 - 백제 멸망에 대한 아쉬움 및 백제 유민과 일본 문화
	일본	오미(近江)의 귀실집사(鬼室集斯)	- 일본 시가(滋賀)현에 소재한 백제 유민의 유산 - 한일 간의 교류와 일본 안의 백제 후예에 대한 사회

1971~72년 연재되었으며 박이엽(1998)의 번역본이 국내에 출간되었다. 「가도를 가다」는 아사히신문출판(朝日新聞出版)에서 총 43권의 단행본으로 간행·판매하고 있다(朝日新聞出版).

시바 료타로는 「한나라 기행」에서 한국 여행의 동기를 두 가지 차원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성장기의 경험과 관련된 동기이다. 그는 「한나라 기행」 1장 초엽에서 2차 대전 당시 만주에 파병 가는 길에 본 서울의 기와집을 떠올리며, 한국인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 출신이다 보니 십대 후반부터 막연히 한국에 가보고 싶어 했다고 언급하였다. 두 번째 동기는 역사인식 및 일본인의 기원에 대한 호기심과 관계가 있다. 그는 1장의 한국 여행 동기를 밝히는 구절에서 한국을 '일본인의 선조 나라'라고 칭하며, 한국인과 일본인은 고대에는 한 민족이었던 만큼 한국의 농촌을 방문하면 이러한 느낌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나라 기행」은 총 3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 장은 크게 3부로 범주화되어 있다. 이 중 1부는

‘가야 여행’으로, 여행의 동기를 밝힌 다음 부산을 통해서 옛 가야의 중심지였던 김해 일대를 둘러보는 내용을 담은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부인 ‘신라 여행’은 경주 기행 및 우륵동⁶⁾과 김충선을 다룬 12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3부인 ‘백제 여행’은 대구에서의 숙박 경험 및 백제 관련 기행을 다룬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에서의 이야기를 다룬 첫 장과 마지막 장을 제외한 28개 장은, 부산, 김해, 경주, 우륵동(友鹿洞), 대구와 왜관, 부여를 다녀온 기행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나라 기행」의 내용구성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편 「한나라 기행」은 시바 료타로의 한국 기행문이라는 점에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한일관계나 일본인의 한국인식 등을 살펴본 선행연구들도 이루어졌다(全彰煥, 2011; 이복임, 2013). 이들 선행연구는 「한나라 기행」이 한국인의 형식화되고 비합리적인 유교적 사고관을 비판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지만, 그에 대한 해석은 상이하다. 이복임(2013)은 이 같은 한국관을 합리적인 일본 문화가 비합리적인 한국 문화에 비해 우월하다는,

일본인의 민족의식 고양을 위한 배타적·차별적 문화 비교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나라 기행」을 시바 료타로가 한국에서 ‘중국의 황제를 상징하는 용은 보지 못하고’ 황제보다 아래 단계인 왕가를 상징하는 봉황만 보고 간 기행문이라고 비유하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이고 왜곡된 이야기로 점철된 기행문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한겨레신문, 2008년 4월 4일자).⁸⁾ 이에 반해 全彰煥(2011)은 「한나라 기행」에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한국에 대한 비하하기보다는, 한국에 대한 일종의 동포애적 관점을 토대로 유교문화의 폐단에 대한 비판과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전창환(2011)은 시바 료타로를 비롯한 일본 작가들 및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는 친일 대 반일, 진보 대 보수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 입각한 편파 대신 문학 자체에 반영된 한국에 대한 복잡 다양한 인식을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한나라 기행」의 한국 인식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했지만, 이 책에 재현된 여행 경로, 장소, 경관과 같은 지리적 측면을 제대로 살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한나라 기행」은 문학지리적 의미와 가치까지 지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에 대한 문학지리적 접근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나라 기행」의 텍스트가 한국의 장소, 공간, 경관을 어떠한 시선에서 어떻게 재현하였는가의 여부를 문학지리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한나라 기행」이라는 텍스트의 지리적 재현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텍스트로부터 지리적 내용을 담은 주제어들을 계통적으로 추출, 분류한다. 분류 방법 및 기준은 선행연구(주신하·임승빈, 2003; 반영운 등, 2012; 이지나·정희선, 2017; 2018; 정은혜, 2018; 정희선, 2018)를 참조하여, 텍스트로부터 인문지리 및 자연지리 관련 핵심어들을 추출하고 계통별로 분류한다.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박이엽(1998)의 번역본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는 일본어판(司馬遼太郎, 2008)과 대조함으로써 텍스트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장소와 경관에 대한 시선이 연

구주제인 만큼, 일본에서의 이야기를 다룬 첫 장과 마지막 장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서 「한나라 기행」을 구성하는 주요 주제어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전반적인 특징은 어떠한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를 선정할 때에는, 시바 료타로가 한국 여행을 하면서 각 여행지들에 대한 시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여행지별로 주제어들이 이루는 의미연결망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서 여행지별로 시바 료타로의 시선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가를 보다 구조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의미연결망 산출 시에는 우선 여행지별로 어떠한 주제어들이 출현하였는가를 확인한 다음, 출현빈도를 기준으로 빈출 주제어 40-60개를 핵심 개념으로 선정하고 이들 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한글 텍스트 의미 분석 소프트웨어인 KrKwic⁹⁾을 통해 도출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 소프트웨어인 Ucinet 6 및 시각화 소프트웨어인 NetDraw를 활용하여 그 결과를 의미연결망으로 표현한다. 이를 통해서 시바 료타로가 어떤 여행지에서 어디에 시선의 초점을 맞추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하지만 의미연결망 만으로는 여행지별 시선의 구체적·심층적인 맥락이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나라 기행」은 문학 작품인 만큼, 의미연결망을 토대로 텍스트 속의 장소와 경관에 대한 시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표 1을 살펴보면 경주여행에서는 들놀이, 일본 고대의 가무 문화, 한국인의 순박함과 친절함과 관련된 주제어들이 핵심 개념으로 선정될 개연성이 높는데, 이러한 주제어가 출현빈도가 높다거나 의미연결망 내부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텍스트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van Manen 현상학(Cypress, 2011; van Manen, 2016)에서 추상적인 현상의 의미 분석 기법인 선택적 읽기(selective reading: 원 자료로부터 중요한 개념, 문장, 구절 등을 찾아서 정리하는 과정)와 세부적 읽기(detailed reading: 선택적 읽기 단계에서 확인된 중요 개념, 문장, 구절 등의 세부적·구체적·맥락적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 기법을 차용하여, 의미연결망에서 확인된 핵심 개념 및 이들 간의 네트워크적 연결성(선택적 읽기)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러티브로 전개되며 어떤 시선을 재현하고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표 2. Urry의 관광객의 시선의 주요 유형 및 특징

유형별 시선	주요 특징
낭만적 시선	- 여행자 개인의 시선 - 여행지의 경관, 장소, 사물, 문화, 풍습 등에 대한 일관성 있는 몰입 - 관점, 경탄, 여행지에서 느껴지는 기운 등과 관련된 시선
집단적 시선	- 개별 여행자가 아닌, 동료 여행자와의 집단적인 활동 - 동료 여행자, 다른 여행자들과 공유하는 일련의 접촉과 관련됨 - 익숙한 대상에 대한 응시
관객적 시선	- 집단적인 활동과도 관련됨 - 여행 중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짧고 단편적이며 일상적인 접촉과 관련됨 - 상이한 기호에 대한 파악과 수집
환경적 시선	- 집단적이고 조직적이며, 일관성 있고 교훈적인 시선 - 주시와 관찰 위주의 해석 - 여행자의 여행지에 대한 영향력과 관련되는 시선
인류학적 시선	- 여행자 개인의 시선 - 여행지의 역사적·문화적인 경관, 장소, 부호 등에 대한 일관성 있는 몰입 - 여행지에 대한 탐색적·능동적 해석

* Urry(1992:184); Gutowska(2013:22)를 참조하여 재구성.

파악(세부적 읽기)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들놀이에서 한국인들의 환대를 받은 감동(이와 관련된 주제어가 출현 빈도가 높고 의미연결망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가정했을 때)이 단순히 인간적인 친절과 순박함에 대한 감상에 지나지 않는지, 여행 목적에서 밝힌 한국에 대한 동경이나 일본인의 기원에 대한 호기심과 밀접하게 관련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시선이 대구 여행에서 언급된 불친절한 호텔 프런트 직원들에 대한 시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의미연결망에 대한 해석학적 분석 및 해석 과정에서는, 시바 료타로가 한국을 여행하는 일본인 여행자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근원적으로 외부자 시선에서 한국의 장소와 시선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학자 J. Urry의 ‘관광객의 시선(tourist gaze)’ 개념에 기초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관광객의 시선이란 외부자의 입장에서 여행자의 본인의 연구지와는 상이한 여행지의 문화, 경관, 풍습, 사람 등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론적으로 개념화한 것으로, 여행지의 ‘고유성(authenticity)’을 밝히는 대신 관광객이 연구지와는 상이한 여행지의 특성을 바라보는 방식과 관점을 개념화했다는 점에서 관광학, 문화인류학, 지리학 등의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어 오고 있다(Urry, 1992; 김사현, 2008; 엄문연 등, 2017;

이지나·정희선, 2017; Beerenholdt *et al.*, 2004). 관광객의 시선은 낭만적 시선(romantic gaze), 집단적 시선(collective gaze), 관객적 시선(spectatorial gaze), 환경적 시선(enviromental gaze), 인류학적 시선(anthropological gaze)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상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한나라 기행』은 시바 료타로 개인의 기행문¹⁰⁾인 만큼 집단이나 단체 관광객의 시선과 관련되는 집단적 시선과는 의미 있는 관련성이 없다. 그리고 한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친 내용도 없기 때문에, 환경적 시선과도 관련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Urry의 관광객의 시선 유형이 갖는 여러 유형 가운데 낭만적 시선, 관객적 시선, 인류학적 시선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해석한다.

한편 시바 료타로는 일본인, 그것도 일본 문학계를 대표하는 소설가라는 점에서, 그의 한국에 대한 시선은 단순한 여행자의 시선을 넘어 탈식민주의 지리학(postcolonial geography)과도 연관 지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탈식민주의 지리학이란 20세기 후반 이후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기존의 식민주의적·제국주의적 제도와 문화, 사회구조 등의 잔재 및 이에 대한 저항과 반성 등이 구 식민지 또는 식민국가의 장소와 경관에 재현되는 양상에 초점을 둔 인문지리학의 흐름이다(Sidaway, 2000; Jackson, 2014; 박경환, 2018). 박경환(2018)은 근대 유럽의 여행기를 탈식민주의 지리학의 관점에서 분

석한 연구를 통하여, 제국주의 시대에 유럽인들이 쓴 여행기에는 서구 중심주의적 시선,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지를 미개하고 계몽이 이루어져야 할 ‘열대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 등이 다분히 재현되어 있으며 이는 여행지에 대한 부정적 시선뿐만 아니라 낭만적 시선과도 연결된다고 논한 바 있다. 특히 한일관계의 역사적·정치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보면, 한국의 경관과 장소에 대한 일본인의 시선은 관광객의 시선뿐만 아니라,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크다. 구한말-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한국의 장소와 경관을 바라보던 시선은 한국의 낙후성과 근근대성을 강조하고 한국을 지배해야 할 공간으로 간주하는 제국주의적·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이 다분했으며, 이 같은 측면은 서구인의 아시아에 대한 시선에 비해서도 특히 강했다(신승모, 2008; 박은영, 2013; 박소영·정재윤, 2014). 이러한 제국주의적·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은 해방 이후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완전히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한국을 일본의 이웃이나 동반자,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나아가 일본의 식민지배나 전쟁범죄 등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는 시선 또한 등장하고 있다(조철기, 2008; 久田光政, 2010; 이연심, 2015).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 관련성과 상호의존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본인이 한국을 바라보는 이 같은 탈식민주의적으로 복합적인 시선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입장에서 시의성이 매우 높은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나라 기행」에 재현된 한국의 장소와 경관에 대한 시선을 탈식민주의 지리학의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인의 시선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을 야기해온 시바 료타로의 문학세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IV. 분석 결과

1. 주제어 도출 및 분류

「한나라 기행」의 한국어 번역본(박이엽 역, 1998)으로부터 총 377개의 주제어를 추출하였으며, 분류 결과는 표 3과 같다. 주제어 추출 과정에서 내용타당도 확보를

위해 지리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문화지리학 연구 논문을 출간한 적이 있는 전문가 2명의 자문을 받았다. 표 3을 살펴보면 자연환경 주제어(총 45개)에 비해 인문환경 주제어(총 332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연환경 주제어들은 대개 기행문에 언급된 사건의 배경(예: 불국사 근처 숲속에서 벌어진 들놀이의 배경(솔숲); 박이엽 역, 1998:89-92) 또는 역사적 사건의 배경(예: 백촌강 등) 정도로 쓰이고 있다. 즉, 「한나라 기행」은 주로 인문경관 및 인문·사회적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는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Italienische Reise)」과 같이 자연경관에도 초점을 맞춘 기행문(정은혜, 2018)과는 구분되는 특징이다. 이는 「한나라 기행」의 집필이 ‘일본인의 뿌리 찾기’, 한국인에 대한 이해와 같은 인문적 동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문환경 주제어 중에서도 역사 관련 주제어들이 절반에 가까운 비중(40.8%)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사와 일본사의 비중이 확연히 높다(인문환경 주제어 전체 가운데 32.4%, 역사 주제어 중에서는 79.4%). 이는 일본인의 시각, 즉 외부자의 시선이 갖는 특징으로 해석된다. 즉,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한나라 기행」이 집필된 동기, 목적과 관계가 깊다고 판단된다.

2. 부산에 대한 시선

「한나라 기행」 중 부산 여행을 다룬 부분(박이엽 역, 1998:16-54)에서 표 3에 해당하는 주제어를 검색한 결과 총 227개가 확인되었다. 주제어 전체를 모두 살피는 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Kkwc를 활용한 의미연결망 분석에서는 대개 출현횟수를 기준으로 30-60개 사이의 주제어를 선정하는 편이 일반적이라는 점(박한우·Leydesdorff, 2004; 이동민, 2017)을 고려하여, 이 중에서도 4회 이상 출현한 주제어를 61개를 예비 핵심 개념으로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의미연결망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으며 인접 개념들과의 연결 강도를 의미하는 지수인 연결중심성도 0인 22개를 제외한 39개를 부산 여행의 핵심 개념으로 최종 선정(표 4)하여 이들 간의 의미연결망을 도출(그림 1)하였다. 의미연결망에서는 중심부에 위치한 주제어일수록 텍스트 전체에서 중심적이며, 노드의 크기는 해당 노드와 연결된 여러 노드들 간의 연결 강도인 진입차수에, 노드를 연결한 선의 굵기는 두 노드

표 3. 「한나라 기행」의 주제어 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출현 빈도(회)	비율(%)
자연 환경	자연경관	평야·산지·하천·수목경관(솔숲, 언덕, 개울 등)	26	57.8
	자연지리	위치 및 기상·기후	6	13.3
		지형(대륙, 반도, 열도 등)	4	8.9
		하천 및 해안(백촌강, 낙동강, 하구 등)	9	20
	소 계		45	100
인문 환경	인문경관	촌락경관(농촌, 전원, 논두렁 등)	9	2.7
		도시경관 및 인프라(호텔, 고속도로 등)	4	1.2
		인문경관 일반(가옥, 건물, 도로 등)	8	2.4
	역사	한국사(가락, 백제, 신라, 김충선, 이순신 등)	46	14.0
		일본사(일본서기, 사야가(沙也加) 등)	61	18.4
		중국사(당(唐), 명(明), 소정방 등)	12	3.6
		역사 일반(고대, 근대, 기원전, 킷차크 등)	16	4.8
	인구	민족·인종(한민족(韓民族), 통구스, 왜 등)	22	6.7
		사회계층·계급(양반, 왕족 등)	11	3.3
		인구이동(도래, 망명, 귀화 등)	8	2.4
		국적(한국인, 일본인 등)	5	1.5
		인구일반(인구, 남녀 등)	5	1.5
		정치인(이승만, 김대중)	2	0.6
		지역구분(지명, 행정구역)	43	12.9
	정치·경제	정치 및 외교(국토, 영토, 수도, 지배 등)	20	6.0
		농업(벼농사, 쌀 등)	5	1.5
		경제제도 및 상공업(자본주의, 경제 등)	3	0.9
		유교적 전통(유교, 예교(禮敎), 관리사회 등)	15	4.5
	사회·문화	종교(불교, 신사(神社) 등)	5	1.5
		의식주(난방법, 온돌 등)	4	1.2
		여가생활(들놀이, 장구)	2	0.6
		사회·문화 일반(사회, 문화, 문명 등)	6	1.8
		예술·문학	8	2.4
	예술·문학	유적(모하당, 백제탑, 괘릉 등)	8	2.4
		음악·미술·불상, 봉황, 용 등)	8	2.4
		문학 및 문집(모하당기, 녹촌기 등)	4	1.2
	소 계		332	100
	총 계		377	

표 4. 「한나라 기행」 부산 여행 핵심 개념 목록

핵심 개념	출현 빈도(회)	연결중심성	핵심 개념	출현 빈도(회)	연결중심성	핵심 개념	출현 빈도(회)	연결중심성
조선	86	3.211	서울	12	0.450	정치	7	0.846
일본	82	2.280	가라	10	0.500	무로마치	5	1.813
쓰시마	69	3.993	김해	10	1.645	소(宗)	5	1.255
부산	47	0.780	도쿠가와	10	2.750	신라	5	0.280
섬	32	2.141	번(藩)	9	0.975	왜성	5	0.500
중국	35	0.996	임나(任那)	10	1.146	한일	5	0.869
한국	26	1.241	동물원	8	0.500	구야(狗耶)	4	0.500
왜관	25	1.236	역사	8	0.911	막부(幕府)	4	1.884
이순신	31	0.416	히데요시	8	0.897	시가지	5	0.229
일본인	21	1.662	메이지	7	2.020	오키나와	4	1.147
쌀	18	2.345	바다	7	1.231	언어	4	1.146
명(明)	16	0.252	아치키(阿直岐)	7	0.326	왜인	4	1.578
고대	12	1.125	왜놈	7	0.577	외국인	4	0.986

고 서술한다. 물론 그는 이를 우열이 아닌 차이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아래 인용문의 ‘용과 봉황’ 이야기도 한국에 대한 폄하가 아닌, 이러한 시선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부산(과 쓰시마)을 인류학적 시선에서, 한일 간의 동질성과 차이를 재현하는 장소로 바라보았다.¹²⁾

당시의 한국은 서양식으로 말하면 독립국이나 다름없었으나 동양식으로 해석하면 ‘종주국’을 받들고 있었다……. 그러므로 서울에 있는 왕실의 궁전에 가보아도, 같은 상상의 동물인 봉황 문양은 있어도 용 문양은 없다……. 서양식의 본국·속국 관계라기보다는, 이를테면 ‘장유유서’의 관계에 가깝다. 한국의 이왕가(李王家)는 스스로를 왕이라 하고, 결코 ‘황제’를 참칭하는 것 같은 무례를 범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은 옛날부터 스스로 천황(天皇)이라 하며 ‘황(皇)’자를 쓴다……. 일본은 종제 말해서 소중화(小中華)이지만, 중국이나 조선의 눈으로 볼 때는 비문명국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이엽 역, 1998:36-37)

「한나라 기행」 부산 편에서는 부산의 도시 경관은 상세하게 기술하거나 재현하지 않았다. 그나마 용두산의 이순신 장군 동상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역시 시바 료타로는 부산의 장소와 경관을 낭만적·관객적 시선보다는 다분히 인류학적 시선에서 바라보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한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위치한 용두산 공원이 본래 왜관 구내였음을 언급하며 한일관계사의 변동에 따른 ‘역사적 아이러니’를 지적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갑옷과 투구를 걸치고, 왼손에 대검을 찬 자세로, 멀리 남쪽을 노려보고 있다. 남쪽은 부산의 바다이며, 대항해 협이며,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저편은 일본이다. 이순신은 문자 그대로 조선의 수호신임에 틀림없다……. 이순신의 동상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는 쓰시마 번이 안택신(安宅神)으로 모신 곤비라고(金比羅宮)가 서 있었다 하니, 곤비라고가 인도에서 건너온 바다의 수호신임을 생각할 때 인연의 기이함을 느끼게 된다.

(박이엽 역, 1998:46-47)

부산 여행의 말미에서는 다음 행선지인 김해로 이동

할 준비를 하면서, 가야와 일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의미연결망 좌상단의 ‘구야(狗耶)’, ‘가라’, 우하단의 ‘임나(任那)’ 등은 바로 가야를 지칭하는 지명들이다. 시바 료타로는 가야로부터 고대 일본인의 계보와 세계관을 탐색하였다.

그때(고대)는 아직 일본 열도에 국가가 성립해 있지 않았기에 왜인들은 빈번히 김해 일대를 왕래하였으며, 개중에는 더러 놀러앉아 사는 자도 있었고, 다른 한편 가락국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경작을 하고 사는 경우도 많았다……. 가락국 사람들에 의하여 일본에 야요이식(爾生式) 농법¹³⁾과 문화가 도입되는 이야기도 있다……. ‘가라’란 구체적으로는 가락국을 가리키지만, 그것이 조선반도 일만을 가리키는 것이 되었고, 한(韓)이라는 한자를 Kala라고 읽게 되었는데, 때마침 중국 대륙에 수(隨), 당(唐)이라는 거대한 통일국가가 출현함에 이르러, 중국을 Kala라고 부르게 되었고, 당(唐)이라는 글자를 갖다 댔다. 먼 훗날에도 시대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 일반을 ‘가라모노(唐物)’라 부르게 되니, ‘가라’는 해외를 뜻하게 되었다. 요컨대 그 근원을 캐 올라가 보면 낙동강 기슭의 가락국에 이르는 것이다……. 지금의 김해 땅은 고대 남조선인 내지 고대 일본인이 ‘왜’라는 인종명으로 거기에 토착하였고, 호태왕비문에서 말하는바 ‘왜’라는 집단명으로 고구려국의 남하군과 분전 끝에 패했다고 하는 그 토지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박이엽 역, 1998:52-54)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가야가 고대 일본의 영토였다는 이른바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設)’도 언급되어 있다는 점이다. 시바 료타로는 임나일본부를 부정하는 한국 측 학설과 이를 긍정하는 일본 측 학설을 동시에 소개 하면서, 어느 쪽이 타당한가의 여부는 학계가 판단할 문제라고 하며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오늘날 임나일본부설이 한국에서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소지도 다분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기술은 논란의 소지도 적지만은 않다고 여겨진다(박은영, 2013; 이연심, 2015). 하지만 이는 가야 영토가 한일관계에서 가지는 역사적·지리적 의미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할 여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야 영토에 고대 일본인 또는 일본인의 선조가 거주했다는 논의

표 5. 「한나라 기행」 경주 여행의 핵심 개념 목록

핵심 개념	출현 빈도(회)	연결중심성	핵심 개념	출현 빈도(회)	연결중심성	핵심 개념	출현 빈도(회)	연결중심성
일본	23	0.807	바다	11	0.426	니시혼간지(西本願寺)	4	0.854
가락(駕洛)	19	2.916	민족	9	0.408	나라(奈良)	4	1.850
김해	18	1.458	김수로	8	0.348	배전(拜殿)	4	0.632
김(金)	16	2.817	특무	8	0.204	덴표(天平)	4	0.632
가야	11	2.739	본관	6	2.336	류코쿠(龍谷)	4	0.707
고대	11	1.362	가라문(唐門)	4	0.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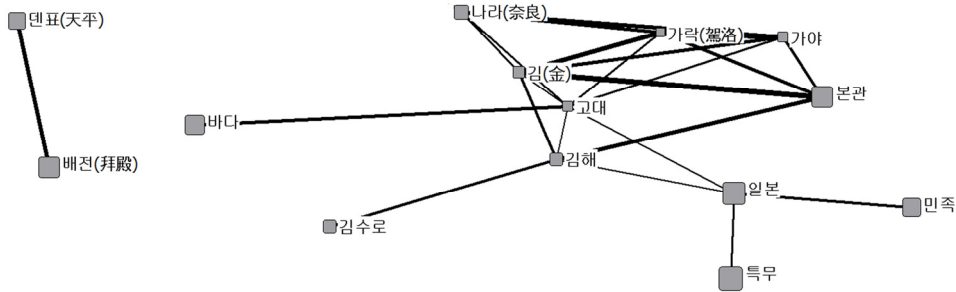


그림 2. 「한나라 기행」 김해 여행의 핵심 개념들의 의미연결망

자체는, 가야가 고대 한일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일종의 중간자적 영역이었음을 시사하지만 일본 영토였음을 단정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정효운, 2007; 문창로, 2012).

3. 김해에 대한 시선

「한나라 기행」의 김해 여행기(박이엽 역, 1998:55-72)에서 표 3에 해당하는 주제어 126개가 검색되었다. 이 중에서 4회 이상 출현한 주제어 31개 가운데 연결중심성 0인 14개를 제외하고 17개를 핵심 개념으로 선정(표 5)하였다. 이들 간의 의미연결망은 그림 2와 같다.

김해 여행 역시 부산 여행과 마찬가지로 인류학적 시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바 료타로는 김해의 장소와 경관을, 고대 가야(가락)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고대 한일 간 교류의 공간적 재현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래의 인용문에 나타난, 김수로 왕릉의 가락루(駕洛樓)에 대한 시선이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 준다.

누문을 들어서니 갑자기 덴표(天平)¹⁴⁾ 시대의 그 옛날로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다. 좌우에 건물이 있고, 정면에 배전(拜殿)이 있다. 아무리 보아도 덴표 건축이다. 다만 야마토에 남아 있는 양식같이 날씬한 느낌이 아니고, 사용

한 재목 같은 것도 굵어 있기가 예사요, 모르지기 거칠고 투박하며 시골 목수가 맘을 뽐뽐 흘렸을 것 같은 느낌인 것이다. 원형은 모르지기 이르렀으리라. 허나 만약에 내가 1500년 전의 우라시마타로(浦島太郎)¹⁵⁾라면 이 무덤 하나만 보고도 여기가 용궁성(龍宮城)이라 여겼을 것이다.

(박이엽 역, 1998:71)

시바 료타로는 이와 더불어 김수로왕을 시조로 하는 김해 김씨를 예로 들어, 한국인의 본관과 가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본관을 중심으로 하는 동성동본 의식을 한국인들의 특징으로 소개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상대(上代)와 결별하고 중국식 유교 체제를 도입한 이후로는, 동성은 불취(不娶)하는 것으로 굳어졌다. 본관이 같은 동성은 단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원조가 같은 것으로 되고 동일씨족은 곧 혈족으로, 오누이가 결혼 못하는 것같이 동성동본은 결혼 불가인 것이다……. 서양인이나 일본인들에게서 더러 볼 수 있는 중형제간의 결혼은 조선인들의 눈에는 참으로 해괴한 일이며, 짐승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모양이다.

(박이엽 역, 1998:58)

한편 본문에는 한국의 ‘특무’(일종의 비밀경찰)를 조심

하라는 대화가 언급되어 있다. 이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한국의 군사정부에 대한 일본인으로서의 객관적 시선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경주에 대한 시선

경주 여행기(박이엽 역, 1998:65-103)에서는 주제어 251개가 확인되었다. 4회 이상 출현한 51개 주제어에서 연결중심성 0인 21개를 제외한 30개 핵심 개념(표 6) 간의 의미연결망을 그림 3과 같이 도출하였다.

경주 여행기서는 시바 료타로의 시선이 불국사, 석굴암 등의 이름난 문화유산이나 관광지가 아닌, 술솥에서 벌어진 경주 주민들의 들놀이에 집중되었다는 특징이 관찰된다. 들놀이를 바라보던 그의 시선 역시, 이를 통

해서 우타가키 등 고대 일본의 가무(歌舞) 문화의 원류를 찾고자 하는 인류학적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문헌상 1200년 전에 사라져버린 이 습속이 조선의 농촌에서는 아직껏 신선한 오락으로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들놀이, 또는 들춤 또는 우타가키는 상대(上代) 일본에서는 다른 부락과 통혼(通婚)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크게 효용이 있었다는데, 이것이 자칫 음란으로 흐른다 하여 일본의 나라 조정에서는 호키(寶貴)¹⁸⁾ 원년부터 금지해 버렸다는 흔적이 있다. 그 뒤 본오도리(盆踊)¹⁹⁾ 같은 것이 되어 그 풍속이 이어지는데 일본의 본오도리와 조선의 들놀이를 비교해보건대, 조선의 그것에는 고풍스러운 격조가 있어 가령 도도이쓰(都逸)²⁰⁾와 만요의 노래를 비교하는 격으로 기품 면에서

표 6. 「한나라 기행」 경주 여행의 핵심 개념 목록

핵심 개념	출현 빈도(회)	연결중심성	핵심 개념	출현 빈도(회)	연결중심성	핵심 개념	출현 빈도(회)	연결중심성
일본	68	3.543	통구스	10	1.571	천 황	6	2.492
조선	35	1.407	들놀이	9	0.511	들 판	5	0.236
신라	45	0.714	장 구	9	0.957	한 인	5	1.115
경주	25	1.381	일본인	9	1.200	구다라	4	1.822
백제	25	1.779	고 대	8	1.551	만요(萬葉) ¹⁶⁾	4	0.811
불국사	25	0.902	우타가키(歌垣)	8	0.658	씨 족	4	1.066
노인	13	0.250	왜 인	7	1.404	임 금	4	0.279
술 솥	19	1.040	한민족	7	1.472	왕 조	4	0.813
한국	13	0.908	당(唐)	6	2.380	지 배	4	1.155
만주	10	1.411	왜	6	0.427	청정(淸正) ¹⁷⁾	4	0.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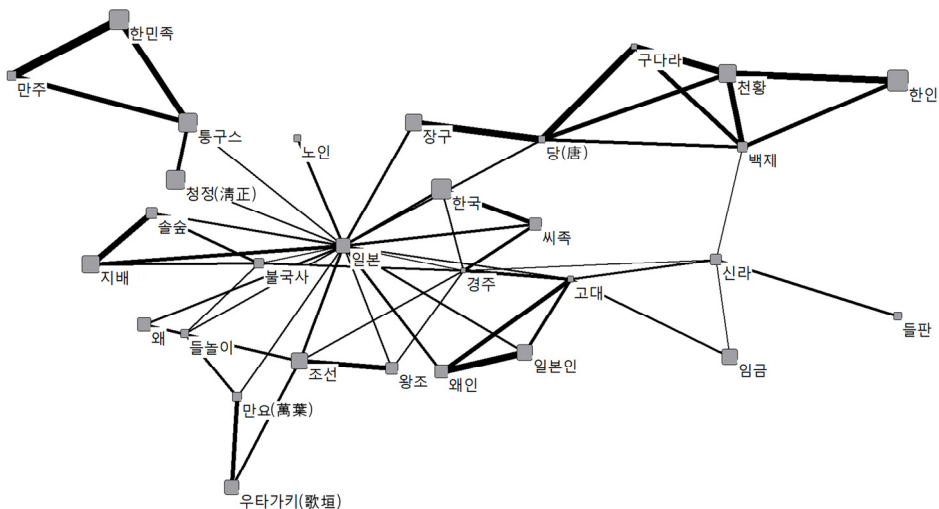


그림 3. 「한나라 기행」 경주 여행의 핵심 주제들의 의미연결망

대단한 차이가 있다고 여겨진다.

(박이엽 역, 1998:92)

의미연결망 좌상단의 통구스를 중심으로 한 연결망 역시 한국인과 일본인의 계보에 관한 인류학적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바 료타로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시베리아와 만주 지방에 거주하는 통구스계 민족의 분파이며 이들이 남하하여 고대 한국과 일본의 문명을 건설했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면서 고대 백제인과 신라인들이 일본 문화 형성에 미친 영향, 신라가 중국 문화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일본의 사회·문화와 차별화되는 과정 등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뒤의 일인데, 묘하게도 전승국인 신라로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건너와서, 일본 아스카(飛鳥) 문화²¹⁾의 형성과 생산에 참여하였다……. 야마토(大和)의 아스카와 오미(近江)는 백제인들의 힘으로 이룩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고, 간토(關東) 평야의 개척은 신라인의 존재를 무시하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조선인은 어디서 왔을까? 상식적으로 생각되기는 남하한 자라는 것이다. 즉 북방의 만주(滿洲)에서 왔다……. 한민족(漢民族)이 별로 들어오지 않았을 무렵의 만주는, 수렵과 약간의 농경으로 사는 고유만주족(통구스)의 천지였다. 그들은 한민족과는 언어도 전혀 달랐는데, 그 언어는 몽골어와는 자매관계에 있고, 일본어와는 혈연관계에 있었다……. 신라는 그 중반기에 와서부터 중국화 하여(곧 한민족의 처지에서 보면 오랑캐가 아닌 사람이 되어) 중국식 성을 갖게 되었을 때, 유력한 왕조 계통 사람들이 김(金) 성을 갖게 되었다.

(박이엽 역, 1998:74-76)

한편 경주 여행에서는 한국에 대한 시바 료타로의 낭만적 시선이 강하게 재현되어 있기도 하다. 들놀이가 벌어지던 경주 솔숲을 여행하던 시바 료타로는, 들놀이에 참여한 한국 노인들의 순박한 인심과 친절함에 대한 감동을 아래와 같이 전하고 있다.

제일 나이 많은 노인께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영금영금 기어오시더니, 입술을 덮은 수염 사이로 이 또한 어린아이같이 귀여운 웃음을 흘리시면서, “일본 사람, 반갑소.”

하고 처음으로 일본말을 들려주시는 것이었다……. 전쟁이 끝난 뒤 서울의 신문이나 방송들이 그토록 반일 선전을 계속해왔건만, 이 노인은 그런 것을 꿈에도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뉠굴 뻔하다 왈카 하고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박이엽 역, 1992:102-103)

5. 우륵동에 대한 시선

우륵동 여행기(박이엽 역, 1998:104-154)에서 확인된 298개의 주제어 가운데 87개가 출현횟수 4회 이상이였다. 이 중 연결중심성 0인 30개를 제외한 57개의 핵심 개념을 분석한 결과는 표 7, 그림 4와 같다.

표 7과 그림 4를 살펴보면 우륵동 여행의 핵심 개념이 여행지에 비해 그 수가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의미연결망 역시 다른 여행지에 비해 조밀하게 연결된 특징을 보인다. 이는 시바 료타로가 우륵동이라는 여행지에 특히 주목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시바 료타로는 우륵동에서 김충선과 모하당문집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종 사료와 근거에 토대한 역사적 추론을 통해 김충선의 실제와 귀순 과정, 모하당문집의 위작 여부와 우륵동의 형성 과정 등에 대해서 논증하는 인류학적인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김충선의 문집으로 알려진 「모하당기」 및 김충선 후예의 집성촌인 우륵동이라는 장소의 의미를, 조선 및 한국 사회의 유교적 전통, 그 중에서도 가문과 문종을 중시하는 전통과 관련지어 살폈다. 이를 통해서 우륵동이라는 집성촌의 역사적·지리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사야가는 무사다……. 그 사야가가 설사 학문이 좀 있었기로서니, ‘중화의 문명을 그리어라’며 해외의 절대 체제를 그리워할 만큼, 다시 말해서 미칠 만큼 유교 이데올로기의 덩어리가 될 수 있을까?……. ‘섬 오랑캐 사람(島夷人)’이라 칭하는 사야가는, 그러한 쓰시마섬 무사의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星窩)²³⁾ 이상으로 조선사회의 유교 체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다 소나마 유교적 교양도 가졌으리라. 이는 상상일 뿐이나 그에게 조선의 관리와 시문(時文)을 교환할 능력이 있었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여기까지는 대개 사실이리.

(박이엽 역, 1998:125, 131)

표 7. 「한나라 기행」 우록동 여행의 핵심 개념 목록

핵심 개념	출현 빈도(회)	연결중심성	빈도	출현 빈도(회)	연결중심성	핵심 개념	출현 빈도(회)	연결중심성
조선	106	5.092	한국	19	0.450	도요토미	7	1.229
일본	93	3.710	예교(禮敎)	18	2.986	무로마치	7	0.969
중국	59	3.859	고려	16	4.376	인종	7	2.776
사야가	72	0.730	우록동	16	2.126	이민족	7	2.368
유교	46	4.631	민족	15	2.884	증세	7	2.047
마을	41	0.457	쓰시마	15	1.630	예(禮)	6	4.499
농촌	29	0.470	일본인	15	1.465	공경(公卿) ²²⁾	5	0.378
세이카(星窩)	28	1.623	역사	14	1.934	김충선	5	0.798
체제	28	4.625	강항(姜沆)	12	2.020	칼	5	1.631
문명	27	3.921	국가	12	2.254	문화	5	1.707
왜	26	2.660	오랑캐	12	1.294	가토 기요마사	4	1.178
무사	25	2.250	다이묘	11	0.450	경쟁	4	2.827
사회	25	3.352	중화	10	2.336	고니시 유키나가	4	0.644
왕조	25	2.875	후손	9	0.955	관념	4	2.567
명(明)	23	2.170	왜구	9	1.437	메이지	4	0.938
조선인	23	0.743	계급	8	3.231	신분	4	2.482
모하당	21	1.595	관료	8	4.139	아시아	4	2.450
서울	20	0.088	김한조	7	0.333	토지	4	0.397
양반	20	2.507	울령	8	0.474	예도	4	0.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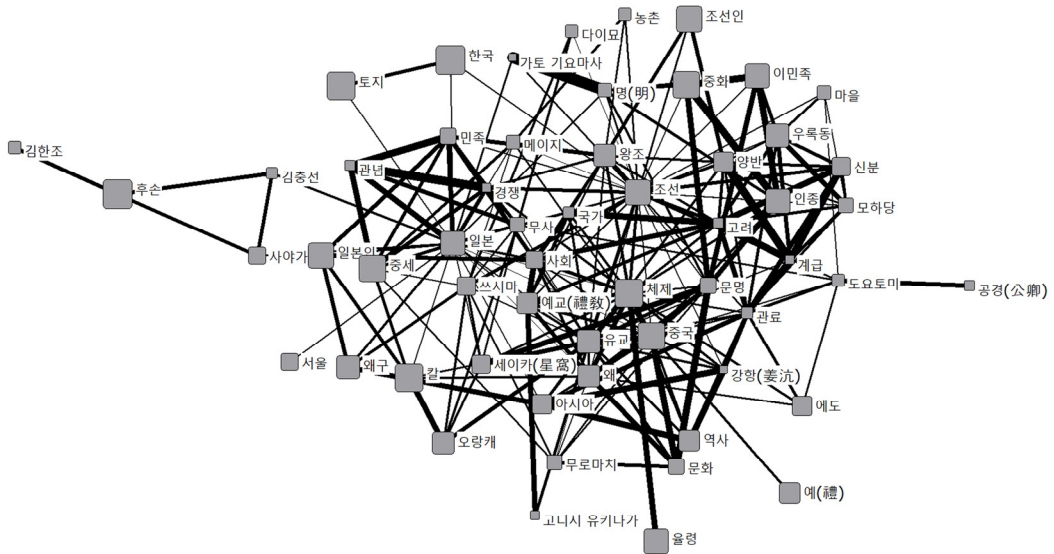


그림 4. 「한나라 기행」 우록동 여행의 핵심 개념들의 의미연결망

그의 수기라는 『모하당문집』이 아무래도 그 자신의 문장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이미 하였다. 당시의 일본인이란면 이렇게 쓸 리가 없다고 여겨지는 표현이 나 사실에 관한 위화감이 그 인상적 증거이나..... 이 문집

은 사야가의 6대손 김한조(金漢祖)가 서울에서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짐작컨대 그 어른께서는 ‘한 마을 전체를, 양반의 반열에 하는 운동을, 서울을 향하여 전개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 마을 가가호호 몽땅 양반이 되

는 일이 어찌 가능할 것인가. 사야가도 그만큼 뛰어난 인물이었겠지만, 그6대손 김한조란 사나이 또한 그 이상으로 흥미로운 인물이다.

(박이엽 역, 1998:137, 143-144)

사당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마도 양반가의 필요조건인 가 보다……. 이 『모하당문집』의 고판(古版)을 이 노파의 집뿐 아니라 이 마을의 여러 집에서 보존하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사당까지 지어놓고 있는 집은 두셋뿐인 모양이다……. 사야가가 유교의 나라를 그리어 귀화한 것은 현명한 일이었던 것도 같다. 그는 지금도 그의 자손이라는 4천명으로부터 유례(儒禮)에 의한 제(齊)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라면 전국(戰國) 말기의 무명 무사 따위 야 이미 아득한 옛날에 무연불(無緣佛)이 되었을 터이다.

(박이엽 역, 1998:146-147, 154)

한편 시바 료타로는 한국의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던 우록동의 농촌 경관에 대해서도 낭만적인 시선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시선은 한국 사회와 한국 농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즉, 시바 료타로가 우록동의 농촌 경관을 바라보는 시선은 물질문명이나 경제적 빈부, 서구(또는 서구화된 일본) 문명의 수용 등을 기준으로 우열을 가름하는 오리엔탈리즘적·서구중심적 시선이 아니다. 그는 오히려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전통 사회의 경관이 다분히 남아 있는 한국 농촌의 경관을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급속한 자본주의적 발전을 성취한 서울과 아직 조선 왕조적 정체 속에 있는 농촌 사이에는 5백년 아니 천년의 간격이 있는 듯하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그 어느 농민의 모습에서도 자본주의적 경쟁사회가 생산해내는 저 험악함과 혐오감이 없다……. 여행자는 결국 관건자(管見者)이다. 더구나 남의 나라를 여행하는 자가 그 나라의 정치가 옳으니 그러니 한다면, 것처럼 불손하고 바보스러운 노릇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의 농촌을 빈곤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회를 기능하는데서 빈부라고 하는 애매한 기준이 20세기의 어느 시기까지는 크게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농촌이 황폐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된다. 그 기준에 따른다면 일본의 농촌이 훨씬 더 황폐해 있다.

(박이엽 역, 1998:134-136)

6. 대구/왜관에 대한 시선

모하당에서 이어지는 여행지는 대구(박이엽 역, 1998:155-171)와 경북 왜관(박이엽 역, 1998:172-179)이다. 「한나라 기행」에서 이 두 여행지에 대한 내용은 분량도 짧고, 시바 료타로가 이 두 장소에서 본 내용 역시 단편적인 성격이 강하다. 대구에서의 이야기는 호텔의 불친절한 서비스에 대한 감상을 적은 정도이고, 왜관 여행에 대한 내용은 왜관의 낙동강을 거닐며 느낀 감상 정도이다. 더욱이 이 두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와 왜관에 대한 시선은 통합해서 다루기로 한다. 대구 및 왜관 편에서는 총 129개의 주제어 가운데 4회 이상 출현한 주제어가 44개로 확인되었고, 이 중에서 연결중심성이 0인 주제어 19개를 제외한 25개의 핵심 개념을 선정하였다. 핵심 개념 목록 및 이들 간의 의미연결망은 표 8 및 그림 5와 같다.

그림 5의 의미연결망은 양분되어 있는데, 우측의 크기가 큰 연결망은 대구 여행, 좌측의 상대적으로 작은 연결망은 경북 왜관 여행의 의미연결망이다.

우선 대구 여행을 살펴보면, '프런트'라는 공간이 중심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구 여행기가 대구의 호텔에서 안마를 받으며 경험한 프런트 직원들의 불친절함과 권위주의, 그리고 프런트 직원들의 눈치를 보는 안마사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술된 데 따른 특징이다. 여기에서 프런트 직원과 안마사에 대한 관객적 시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역사적·문화적 관습과 연결 지어 접근하려는 인류학적 시선을 살펴볼 수 있다.

“요금은 3천원입니다!” 하고 프런트는 액수에 힘을 주어 서 다짐을 한다……. 대단한 폭리다……. 그(안마사)의 태도는 분명히 프런트의 사내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프런트의 사내들이야말로 그의 수입을 쥐고 흔드는 권력자이며, 이 호텔에 출입하는 업자인 그에게는 무서운 관료인 것이다……. 본인 몫은 3백 원이다. 나머지 2,600원은 프런트에 앉은 자들이 나눠 먹는다……. 그것이 아시아식 ‘관리’라는 것으로, 중국에서도 옛날에는 그랬다. 사회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국가도 그렇게 움직였다. 그것이 체제로서의 유교인 것이다.

(박이엽 역, 1998:158, 161-162)

표 8. 「한나라 기행」 경주 여행의 핵심 개념 목록

핵심 개념	출현 빈도(회)	연결중심성	핵심 개념	출현 빈도(회)	연결중심성	핵심 개념	출현 빈도(회)	연결중심성
왜 관	29	1.984	낙동강	14	0.780	조선군	5	1.500
체 제	28	0.365	관 료	9	1.615	근 대	4	0.696
프린트	27	2.887	부 산	9	0.957	봉 건	4	0.903
일 본	26	1.400	마 사 지	8	0.648	오 직(汚職)	4	1.928
안마사	20	1.534	로제스트벤스키	7	0.931	왜	4	0.204
호 텔	18	0.604	명(明)	7	1.500	전제(專制)	4	2.337
조 선	17	0.604	권 력	6	1.892	철 도	4	1.892
러시아	15	1.662	수 도	6	1.196			
한 국	15	0.589	수 탈	5	1.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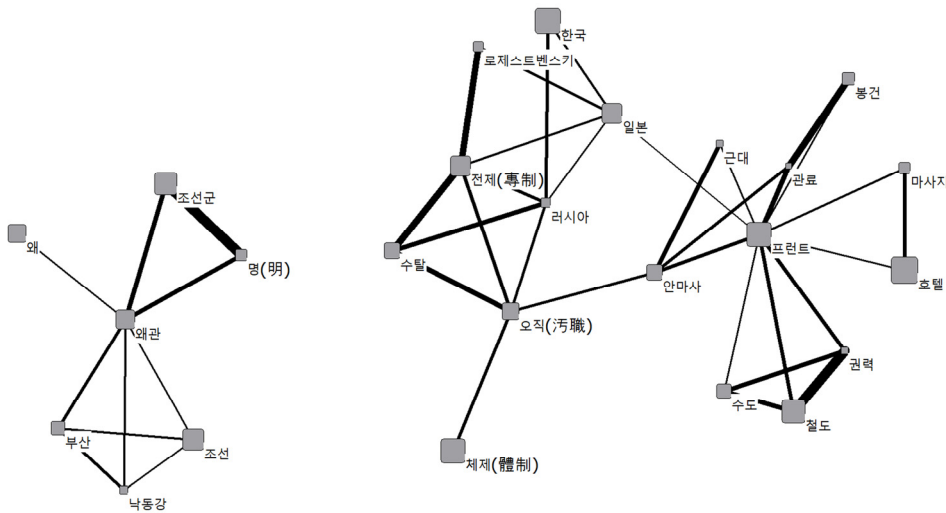


그림 5. 「한나라 기행」 대구/왜관 여행의 핵심 개념들의 의미연결망

이 같은 시선은 탈식민주의적 관점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즉, 시바 료타로가 대구의 호텔에서 겪은 불친절함과 바가지요금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행지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에 대한 관객적 시선을 넘어, 서구중심주의 및 탈아입구론(脫亞入區論)으로 대표되는 일본식의 제국주의적·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이 다분히 반영되어 있다. 그는 대구 호텔 프린트에서의 경험을 소재로, 체제적인 부패와 오직(汚職)이 용납되지 않는 전통을 가진 일본의 사회와 문화는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이른바 '아시아적 체제'의 전통을 가졌던 국가들과는 차별화된다는 이야기도 풀어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나라 기행」 역시 한국에 대한 제국주의적·오리엔탈리즘적 비하나 편견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 또한 지적할 수 있다.

제정 러시아도 대단히 아시아적이었다……. 정의감만을 가지고 당시의 러시아군 창고 문을 열어젖힐 수는 없었다. 그에게는 아시아적 전제 황제의 시종무관이면서 충신이라는 가히 신권적 권력이 있었기에 창고 열쇠를 쥐고 있던 관리들을 벌벌 떨게 할 수 있었지, 만약에 다른 제독이었다면 로제스트벤스키(Зиновий Петрович Рожествецкий, 1848-1909, 러일전쟁 당시 발틱함대 사령관) 같은 강탈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데 그 로제스트벤스키 제독마저도 함대에 영터러 가짜 무전기를 실어야만 했다……. 로제스트벤스키와 그 44척의 함대는 러시아의 체제적 부패의 바다 속으로 격침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이엽 역, 1998:165-166)

일본은 별개의 체제를 지녀왔다. 예컨대 에도 시대의 번 관료들은 딱하리만치 청결하였다. 하기는 기라 고즈케노 스케(吉良上野介) 따위가 뇌물을 먹은 예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기라가 받은 뇌물 따위는 이른바 막부의 의전과장으로서의 교습료 내지는 면접료 같은 것이어서, 구(舊) 아시아적 체제 속에서 관리가 부정을 저지르는, 말하자면 체제 그 자체가 오직 기구로 되어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박이엽 역, 1998:168-169)

한편 왜관 여행(박이엽 역, 1998:172-179)은 원래 부산의 왜관에 관심을 가졌던 시바 료타로가, 대구에서 부여로 이동하며 잠깐 들르며 보고 느낀 견문을 간략하게 서술한 정도이다. 그림 5의 우측 의미연결망은 시바 료타로가 경상북도 왜관의 낙동강 하안에 위치한 왜관의 경관을 보면서, 임진왜란 당시 설치된 일본군의 보급기지 와 하항(河港)에 연원하는 왜관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여기에는 경북 왜관의 유래에 대한 인류학적 시선, 그리고 낙동강과 왜관에 대한 관객적 시선이 재현되어 있다.

7. 부여에 대한 시선

「한나라 기행」 부여 여행기(박이엽 역, 1998:180-233)에서는 총 292개의 주제어가 확인되었고, 이 중에서 4회 이상 출현한 83개의 주제어 가운데 연결중심성이 0인 26개를 제외한 57개의 주제어를 핵심 개념으로 선정하였다(표 9). 이들 간의 의미연결망은 그림 6과 같다.

부여 여행기 역시 인류학적 시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9와 그림 6을 보면 백제 멸망 및 백제 유민의 일본 이주와 관련된 핵심 개념(백촌강, 의자왕, 신왕, 평계탑 등)들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바 료타로는 부여의 장소와 경관을 인류학적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백제의 문화적 특징 및 멸망 과정과 고대 일본과의 관련성 등을 살폈다. 그러면서 백제 문화제에서 중국 문화 및 일본 문화와의 공통점, 관련성을 비교하기도 하였다. 부여 속소의 온돌방 역시 온돌의 기원을 소재로 한국인의 기원과 한일 교류사를 찾아가는 인류학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백제는 (중국 남북조 시대의)북조(北朝)와는 관계가 없고 오로지 남조와 교류하였기에 그 문화적 영향을 질계 받

표 9. 「한나라 기행」 부여 여행의 핵심 개념 목록

핵심 개념	출현 빈도(회)	연결중심성	핵심 개념	출현 빈도(회)	연결중심성	핵심 개념	출현 빈도(회)	연결중심성
백 제	131	2,354	한(韓)민족	12	1,994	김 해	5	2,404
일 본	112	3,643	한(漢)민족	12	3,336	강 남	5	1,495
신 라	61	2,246	기타큐슈	11	2,294	부여족	5	2,305
당(唐)	53	2,840	나카노오에노오지 (中大兄皇子) ²⁴⁾	10	2,106	남조(南朝)	5	1,186
조 선	50	1,059	부 족	10	0,778	고도(古都)	4	0,200
중 국	35	3,304	아즈미(安曇/阿曇)	10	0,736	관폐대사(官幣大社)	4	1,127
부 여	31	0,187	야마토	10	0,885	도 래	4	0,420
문 화	28	0,224	의자왕	10	1,575	도침(道琛)	4	0,378
국 가	27	2,106	임나(任那)	10	1,470	몽 골	4	0,578
고구려	22	2,689	호 족	10	2,685	바 다	4	1,120
왜(倭)	21	1,134	신왕(新王) ²⁵⁾	9	1,177	번(藩)	4	0,431
일본인	21	1,297	온 돌	9	1,575	본 관	4	1,383
육조(六朝) ²⁶⁾	20	1,561	벼농사	8	1,047	부여신궁	4	1,301
천 황	17	1,517	북 방	8	0,979	삼 국	4	1,323
귀 족	16	1,753	외 교	8	0,908	수 도	4	0,992
통 일	16	2,079	백촌강	7	0,518	아스카	4	0,838
남조선	15	1,508	소정방	7	0,241	오키미(大王) ²⁷⁾	4	2,422
만 주	15	2,728	북조선	6	2,966	왕 조	4	0,996
수 군	13	1,423	사 회	6	1,413	하카타(博多)	4	0,387

하쿠호기(白鳳期)라 일컬어지는 예술 시대가 꽃을 피우는 것도 망명 백제인들이 일본의 일본의 궁정에 수용된 사실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이엽 역, 1998:226)

이와 더불어 시바 료타로는 백제 멸망 및 경주에 비해 문화재와 유적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부여의 장소적·경관적 특징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감추지 않았다. 경주와 우륵동에서 시바 료타로가 순박하고 친절한 한국인과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농촌 경관에 감동받는 형태의 낭만적 시선을 보여 주었다면, 부여에서의 낭만적 시선은 백제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시선의 형태로 재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저 석탑을 없애지 말라. 탑에 비문을 새기겠다.” 하고 소정방은 말했다. 불탑에다 자신의 피비린내 나는 전공을 자찬한 문장을 새기다니 비상식도 유분수겠으나……. 이 탑은 일반적으로 ‘평제탑(平濟塔)’이라고 불린다. 백제를 평정했다는 뜻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당평 백제탑(唐平百濟塔)’이 될 것이다……. 부여에 남아 있는 백제 유일의 기념물이 당나라 장군의 정복 기념탑일 뿐이라면 어찌 탄식할 일이 아니라.

(박이엽 역, 1998:233)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한나라 기행」에 재현된 한국에 대한 시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시바 료타로는 한국의 장소와 경관을 인류학적 시선을 위주로 바라보았다. 그렇기에 시바 료타로는 한국에서 유명 관광지나 명승지, 절경 등을 찾는 대신 일본인과 일본 문화의 원류가 재현된 장소와 공간을 찾았다. 경주에서 불국사나 첨성대, 석굴암을 보는 대신 솔숲의 들놀이를 보면서 고대 일본 가무 문화의 원형을 살핀 점,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은커녕 한국에서도 지명도가 극히 낮았던 우륵동을 방문하여 김충선의 발자취를 찾았던 점 등이 이 같은 시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그는 이 같은 인류학적 시선을 토대로, 한국의 장소와 경관을 고대 일본인과 일본 문화의 원류가 재현된 공간으로 바라보았다. 둘째, 시바 료타로는 경주, 우륵동 등에서

순박하고 친절한 한국인과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한국 농촌의 경관에 감동받았으며, 이에 대한 낭만적 시선을 「한나라 기행」에 재현하였다. 아울러 고대 일본인과 일본 문화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여긴 백제의 쇠락과 멸망을 재현한 부여의 장소와 경관에서는, 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낭만적 시선에 담기도 하였다. 셋째, 「한나라 기행」은 한국에 대한 존중 및 낭만적인 시선을 재현하기도 했지만, 이와 동시에 제국주의적·오리엔탈리즘적으로 왜곡된 시선 역시 재현하고 있다는 한계도 지적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 호텔 프런트에 대한 시선이다. 여기서 그는 불친절한 서비스에 대한 인상을 단순한 관객적 시선을 넘어,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아시아적 폐단’과 관련짓는 등 오리엔탈리즘적으로 왜곡된 시선으로 서술하였다.

「한나라 기행」에 재현된 한국에 대한 이 같은 시선은 단순히 시바 료타로의 개인적인 시선이나 「한나라 기행」만이 가진 독특한 관점으로 치부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한일 고대사 및 교류사에 대한 의식, 그리고 한국의 장소와 경관에 대한 복합적인 시선은 일본인, 그리고 일본 문학이 한국을 바라보고 재현하는 시선을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로 기능할 개연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학계에서는 일본의 고대 문화가 한일 간의 교류 및 한국으로부터의 도래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연구 및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키히토(明仁) 일왕은 일본 왕실을 백제 왕실의 후손으로 공언하기도 하였다(홍성필, 2008; 長瀬一男, 2015; 板橋義三, 2015). 이 같은 의식은 한일 간의 동질감에 토대한 우호 증진의 기반이 될 가능성,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일선동조론(日鮮同朝論)이나 임나일본부설에 입각한 역사왜곡 또는 잘못된 영토인식과 같은 제국주의적·국수주의적으로 왜곡된 사상의 토대로 작용할 위험을 동시에 가진다(홍성필, 2008; 박은영, 2013). 그리고 이 같은 관점은 「한나라 기행」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일본인이 한국의 장소, 경관, 영역 등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다양한 양상으로 재현될 수 있다. 향후 일본 문학이 가야, 백제 등 고대부터 한일 교류가 이루어졌거나 일본의 고대 문명 형성과 유의미한 접점을 가진 장소와 그 경관을 어떠한 양상으로 재현하는가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한층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일본인이라는 외부자가 한국의 장소와 경관을

바라보는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시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시선이 일본 문학에 어떻게 재현되는가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행기는 근원적으로 외부자에 의해서 작성되는 만큼, 여행기에 재현된 시선은 여행지에 대한 존중과 포용, 그리고 서구중심적 폄하나 왜곡 등 부정적이고 편향된 시선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전창환, 2011; 이지나·정희선, 2017; 2018; 정희선, 2018). 이러한 시선의 의의와 한계를 구체적·심층적·다각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문학지리학 및 여행기 연구의 중요한 과제에 해당한다(Knudsen *et al.*, 2007; Saunders, 2010). 더욱이 일본 문학, 특히 한국을 주제 또는 소재로 다룬 문학 작품의 경우 일제강점기 등 한일관계의 맥락에 따른 반일 감정과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하여 그 의미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거나 왜곡되어 이해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전창환, 2011).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시바 료타로의 한국에 대한 시선 역시, 이처럼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시선이 혼재되어 있었다. 요컨대 이복임(2013)이 지적한 한국의 유교적 전통과 관습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제국주의적이고 한국을 비하하는 시선도 대구 호텔 프런트에 재현되어 있었지만, 유교 문화가 매우 현저하게 재현된 경관이라 할 수 있는 우록동 여행을 다룬 부분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유교 문화를 존중하는 시선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편향되고 왜곡된 시선은 시바 료타로와 「한나라 기행」이 가지는 한계이고 비판받아야겠지만, 이러한 시선에만 주목하여 「한나라 기행」을 한국의 장소와 경관에 대한 무시와 폄하, 오리엔탈리즘적·식민주의적으로 왜곡된 시선으로 가득한 기행문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한나라 기행」을 비롯한 일본 문학에 재현된 한국의 장소와 경관에 대한 복잡하고 복합적인 시선에 대해서는, 탈식민주의의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다 심층적·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제기해 본다. 요컨대 ‘친일·반일’, ‘진보·보수’ 등과 같은 이분법적이고 극단적인 시각을 넘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 및 이해할 필요가 있다(전창환, 2011).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나라 기행」은 1971년의 한국 여행을 기록한 여행기로, 이 책에 재현된 한국의 장소와 경관은 오늘날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오늘날의 한국 경관에 대한 일본인의 시선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안해 본다. 둘째, 오늘날 일본인의 한국 인식은 1970년대의 한국 인식과 많은 차이가 있을 개연성이 크다. 예컨대 군사정부의 ‘특무’를 조심하라는 1970년대의 한국 인식, 그리고 한류가 유행하고 있는 2000년대 이후의 한국 인식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한영균, 2014). 이 같은 일본인의 한국 인식 변화가 일본 문학에 재현된 한국의 장소와 경관에 대한 시선과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시바 료타로는 일본 문학과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작가이기는 하지만, 「한나라 기행」에 재현된 그의 시선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시선이다. 일본인이 한국의 장소와 경관을 바라보는 시선은 개개인에 따라서, 작가와 문학 작품에 다양한 양상으로 재현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다양한 시선의 유형과 특성, 의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註

- 1) 시바 료타로는 책의 제목에 韓国이나 大韓民国과 같은 용어 대신 ‘韓の国(가라노쿠니)’라는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시바 료타로는 국가권력의 울타리를 넘어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보고 싶다는 뜻에서 ‘韓の国(가라노쿠니)’라는 용어를 선택했음을 밝힌 바 있다(박이엽 역, 1998). ‘한나라’라는 번역명은 박이엽(1998)의 번역본이 출간되었을 때 사용되었으며, 이는 ‘韓の国’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살리기 위한 장치로 판단된다.
- 2) 「한나라 기행」은 1970년대 초반에 저술되었다. 하지만 일본 문학에 재현된 한국의 장소와 경관에 대한 시선의 이해라는 본 연구의 목적 및 시바 료타로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에 비추어볼 때, 이 책은 문학지리적 텍스트로서 시의성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1960~70년대에 주로 저술된 시바 료타로의 소설을 주제로 한 학술연구와 학문적 논의는 오늘날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高橋誠一郎, 2003; 2005; 이복임, 2009; 2013; 中塚明, 2009a; 전창

- 환, 2011; 박현옥 역, 2014; 大本泉, 2018).
- 3) 그의 소설 작품 다수는 일본 문학계에서 평론계와 문학시장에서 모두 대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나 TV 드라마 등 영상물로도 여러 차례 제작되었다. 일례로 「료마가 간다」는 NHK를 비롯한 여러 방송사들에 의해 드라마로 4회나 제작되었으며, 2009~11년에는 「언덕 위의 구름」이 NHK를 통해 3년에 걸쳐 특별 대하드라마로 방영되기도 하였다. 그의 이름을 딴 문학상인 시바료타로상도 1998년 이후 해마다 시상되고 있다.
 - 4) 도사(土佐, 오늘날 고치 현) 출신 정치가. 적대관계에 있던 사쓰마(薩摩, 오늘날 가고시마 현 남부), 조슈(長州, 오늘날 야마구치 현) 간의 동맹을 성사시켜,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 5) 앞서 언급한 「탐라 기행」도 「가도를 가다」에 포함된 작품인데, 이 작품은 한국 본토(엄밀히 말해서 한반도 남부 일대)의 기행문인 「한나라 기행」과 달리 제주도 기행을 내용으로 하며 출간 시기 역시 1986년이다.
 - 6) 우록동은 오늘날 대구광역시에 속해 있지만, 1970년대 초반에는 대구가 아닌 경상북도 달성군의 일부였다.
 - 7) 시바 료타로가 방문하고자 했던 왜관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이 아닌 부산에 위치했던 일본인 거주지인 왜관을 말하며, 부산의 왜관은 조선시대 일본과의 교역과 교류(주로 쓰시마를 통한)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였다(양홍숙, 2014).
 - 8) 후술하겠지만 이런 식의 비평은 타당성 여부를 떠나, 「한나라 기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토대했다고 보기 어렵다.
 - 9) KrKwic은 영남대학교 박한우 교수와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Loet Leydesdorff 교수가 공동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박한우 교수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영리목적 이용 금지), 공식 매뉴얼은 박한우·Leydesdorff(2004)의 논문이다. KrKwic을 활용한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이동민·고아라(2015)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라며, 출현 횟수를 기준으로 30~60개의 주제어를 선정하는 것 또한 일반적으로 KrKwic을 활용한 의미연결망 분석에서 가장 적절한 규모라고 알려져 있다(이동민·고아라, 2015).
 - 10) 「한나라 기행」에는 시바 료타로 외에도 여행에 동행한 그의 부인과 후배, 가이드 등의 등장인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여행기의 전개는 시바 료타로 한 사람의 시선에서만 이루어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 11) 「한나라 기행」에서는 ‘한국’, ‘대한민국’ 대신 ‘조선’이라는 용어가 주로 쓰이고 있다. 시바 료타로는 책의 첫 장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과 한국인을 대개 ‘조선’, ‘조선인’으로 지칭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박이엽 역, 1998:13)
 - 12) ‘이왕가’, ‘천황’ 등의 용어는 한국인 입장에서 불쾌할 소지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인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도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일본에서는 학술 논문 등에서도 조선 왕실을 ‘이왕가’라고 지칭하며, 일왕을 지칭할 때에는 경칭인 ‘폐하(陛下)’를 반드시 붙여 ‘천황폐하(天皇陛下)’라 부른다(橋本妹里, 2018; 秋山純, 2018).
 - 13) 벼농사가 시작된 일본의 금석병용(金石併用) 고대 문명인 야요이 문명(기원전 4세기~기원후 4세기)을 일컫는다.
 - 14) 일본에서 서기 729~748년에 사용된 연호로, 문화적으로 크게 번영했으며 나라 시대(710~794)의 전성기로 알려져 있다.
 - 15) 거북을 구해준 답례로 용궁에서 대접을 받았다가 육지로 돌아와 보니 수백 년이 흘렀다는 일본 설화의 주인공이다.
 - 16) 일본 나라 시대의 시가(詩家) 모음집인 만엽집(萬葉集), 또는 이와 관련된 일본 고대 문화의 흐름을 일컫는 말로, 백제 유민 등 일본으로 건너간 도래인의 영향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梶川信行, 2009; 藤原享和, 2010).
 - 17) 임진왜란 때 조선에 침공해온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1562~1611)이다.
 - 18) 일본에서 서기 770~780년에 사용된 연호이다.
 - 19) 일본의 명절인 오분(お盆, 음력 7월 15일) 밤에 추는 율무(輪舞)이다.
 - 20) 주로 남녀의 애정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 속요(俗謠)의 일종이다.
 - 21) 일본에서 7세기 전반 오늘날의 나라 일대를 일컫는 아스카를 중심으로 발달한 문화이다.
 - 22) 일본의 율령 체제 하에서 성립된 궁정 귀족을 일

- 권는 말이며,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1185)에 일본 사회의 지배층으로 대두했으나 가마쿠라 막부 설립 이후 봉건체제가 성립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 23) 에도시대 초기에 활동했던 일본의 유학자로, 일본 에도시대 유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인물(1561~1619)이다.
- 24) 고대 일본의 38대 천황인 덴지(天智, 626~672, 재위 668~672)의 왕자 시절 명칭이자, 그에 대한 통칭이다.
- 25) 백제 멸망 직후 부흥운동을 지휘했던 의자왕의 왕자 부여풍(扶餘豊, ?~?)을 일컫는 말이다.
- 26) 중국 남북조 시대(420~589)의 남조 왕조들을 일컫는 말이다.
- 27) 고대 일본에서 천황을 일컫던 명칭이다.

참고문헌

- 김사현, 2008, “어리의 관광시론론 재론: 시선주의의 비판과 확장,” *관광학연구*, 32(6), 85-103.
- 김창환·정해용, 2017, “국토정중앙의 지오 스토리텔링 개발,” *한국지리학회지*, 6(2), 127-147.
- 문창로, 2012, “광복 이후 가야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학논총*, 37, 1-40.
- 박경하, 2015, “귀화인 金忠善(沙也可)의 생애와 역사문화 콘텐츠로의 재현 사례,” *다문화콘텐츠연구*, 19, 45-76.
- 박경환, 2018, “포스트식민 여행기 읽기: 권력, 욕망, 그리고 재현의 공간,” *문화역사지리*, 30(2), 1-27.
- 박성신, 2018, “『한국안내(韓國案内)』를 통해서 본 개항기 도시계획과 생활상: 1902년 군산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7(2), 181-198.
- 박소영·정재윤, 2014, “근대 일본지리교과서 삽화에 나타난 일본의 한국인식: 서양인의 기록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21(3), 119-134.
- 박은영, 2013, “일본 역사교과서의 고대 한일관계사 서술 분석: 후소사(扶桑社)판 교과서를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42, 317-354.
- 박이엽 역, 1998, 『한나라 기행』, 서울: 학고재(司馬遼太郎, 1972, 『韓の國紀行』, 東京: 朝日新聞社).
- 박한우·Leydesdorff, L., 2004,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Daum.net에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6(5), 1377-1387.
- 반영운·이태호·백종인·김민아, 2012, “경관영역 및 공간 유형별 대표 경관형용사 선정,”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2), 95-101.
- 신승모, 2008, “식민지시기 일본어문학에 나타난 ‘만주’ 조선인상: ‘만주’를 바라보는 동시대 시인의 재상(諸相),” *한국문학연구*, 34, 393-428.
- 신인섭, 2010, “근현대 일본소설의 영웅서사 연구,” *일본어문학*, 46, 145-163.
- 양홍숙, 2014, “조선의 對日關係와 동래 사람들,” *한일관계사학회*, 49, 83-125.
- 엄문연·량가·윤유식, 2017, “관광객 시선에 따른 관광지 정체성 및 브랜드 가치와 방문성과 연구: 서울지역 중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41(10), 125-143.
- 오동훈·신정엽, 2017, “Wiley의 접근 방법을 통한 문학 경관 독해: 『달콤한 나의 도시』를 사례로,” *한국지리학회지*, 6(1), 51-62.
- 이동민, 2017, “세계 지리교육 연구의 최근 동향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 *한국지리학회지*, 6(3), 355-368.
- 이동민·고아라, 2015, “중등 지리 교육과정에 반영된 세계 시민교육 관련 요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09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4(3), 1-20.
- 이복임, 2009,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독창적 역사기술 방법: 『언덕위의 구름(坂の上の雲)』의 작자등장 기법,” *일본문화학보*, 41, 139-160.
- 이복임, 2011,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청일·러일전쟁론: 『언덕위의 구름(坂の上の雲)』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49, 227-244.
- 이복임, 2013,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 작품에 나타난 한일관계론: 유교문화의 수용과 변용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57, 109-129.
- 이연심, 2015, “한일 양국의 ‘임나일본부’를 바라보는 시각 변화 추이,” *한국민족문화*, 56, 117-143.
- 이지나·정희선, 2017, “P. 로웰(P. Lowell)의 여행기에 나타난 개화기 조선에 대한 시선과 표상: 『Chosŏn,

- The Land of Morning Calm*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9(1), 21-41.
- 이지나·정희선, 2018, “I. B. Bishop의 19세기 말 조선 여행기 속 재현양상 분석 연구: 주제어와 형용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4(1), 1-17.
- 전창환, 2011, “「탐라기행(耽羅紀行)」으로 보는 시바 료타로의 한국인식,” 일본근대학연구, 33, 267-298.
- 정은혜, 2018, “괴테의 여행기를 통해 그려진 지리적 텍스트 분석: 『이탈리아 여행(Italienische Reise)』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30(1), 1-19.
- 정효운, 2007, “중간자적 존재로서의 ‘임나일본부,’” 동북아문화연구, 13, 381-508.
- 정희선, 2018,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황금 반도(The Golden Chersonese and the Way Thither)』에 나타난 제국주의적 시선과 여성 여행자로서의 정체성,” 대한지리학회지, 53(1), 59-74.
- 조철기, 2008,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담론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43(4), 655-679.
- 주신하·임승빈, 2003, “도시경관분석을 위한 경관형용사 목록 작성,” 한국조경학회지, 31(1), 1-10.
- 한영균, 2014, “일본인의 한류수용에 따른 한국인식의 변화,” 한일관계사연구, 48, 382-420.
- 허석, 2016, “근대일본의 텍스트적 재현과 그 이데올로기적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 드라마 「아쓰히메」와 「언덕 위의 구름」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69, 259-283.
- 홍성필, 2008, “국제인권발전에 대한 한국여성의 기여와 역할,” 저스티스, 102, 216-254.
- 高橋誠一郎, 2003, “司馬遼太郎のトルストイ観 『坂の上の雲』と『戦争と平和』をめぐって,” 比較思想研究, 30, 77-83.
- 高橋誠一郎, 2005, 「司馬遼太郎の平和観: 『坂の上の雲』を読み直す」, 平塚市: 東海大学出版部.
- 橋本妹里, 2018. “李王家陵園墓の土地を巡る問題について: 孝昌園の公園化を中心に,”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18, 87-96.
- 九田光政, 2010, “高校「平和」と「友情」をテーマに八年間日韓交流が学んできたこと,” 歴史地理教育, 767, 126-133.
- 大本泉, 2018, “司馬遼太郎の文学: 『竜馬が行く』・『殉死』を中心として,” 仙台北百合女子大学紀要, 5, 185-194.
- 藤原享和, 2010, “『万葉集』巻一五・三六八八番歌に見える「遠の朝廷」について,” 同志社国文学, 73, 1-14.
- 梶川信行, 2009, “東アジアの中の『万葉集』: 旅人周辺の百済系の人々を中心に,” 国語と国文学, 86(4), 1-14.
- 司馬遼太郎, 1999, 「昭和」という国家, 東京: NHK出版.
- 司馬遼太郎, 2008, 「街道をゆく 2: 韓のくに紀行」(新装版), 東京: 朝日新聞出版.
- 小針進, 2011, “日本マスメディアの韓国報道の変遷と日本人の対韓意識,” 東洋文化研究, 13, 549-574.
- 長瀬一男, 2015, “古代大和朝廷と百濟王氏: 大仏造立と天平期の産金を中心にして,” 環太平洋文化, 30, 78-121.
- 全彰煥, 2011, “「韓の国を行く」に見る司馬遼太郎の韓国認識,” 九州情報大学研究論集, 13, 57-72.
- 潮匡人, 2007, 「司馬史観と太平洋戦争」, 東京: PHP研究所.
- 中村政則, 1997, 「近現代史をどう見るか司馬史観を問う」, 東京: 岩波書店.
- 中塚明, 2009a, 「司馬遼太郎の歴史観: その「朝鮮観」と「明治栄光論」」, 東京: 高文社(박현옥 역, 2014, 「시바 료타로의 역사관: 그의 ‘조선관’과 ‘메이지 영광론’을 묻다」, 서울: 모시는 사람들).
- 中塚明, 2009b, “朝鮮侵略の事実を書かない「司馬史観」の危険性(「坂の上の雲」正しい見かた・読みかた),” 金曜日, 17(48), 16-18.
- 秋山純, 2018, “天皇陛下の御退位及び皇太子殿下の御即位をめぐる右翼動向,” 治安フォーラム 24(7), 12-19.
- 板橋義三, 2015, “日本語の源流と形成,” 日本生理人類学会誌, 20(1), 45-53.
- 和田春樹, 2010, “『坂の上の雲』と朝鮮,” 図書, 736, 2-6.
- 和田春樹, 2012, “『坂の上の雲』はどうなったのか,” 図書, 2-7.
- Bærenholdt, J. O., Haldrup, M., and Urry, J., 2004, *Performing Tourist Places*, London: Routledge.
- Borgatti, S.P., Everett, M.G., and Freeman, L.C. 2002. *Ucinet for Windows: Software for Social Network Analysis*. Harvard, MA: Analytic Technologies.
- Cypress, B.S., 2011, The lived ICU experience of nurses, patients and family members: A phenomenological study with Merleau-Pontian perspective, *Intensive and Critical Care Nursing*, 27, 273-280.
- Gutowska, A., 2013, Between imaginative and corporeal slum tour: Vocabularies of *Favela* tourism in *City of God*, *Hemispheres*, 28, 15-41.
- Hones, S., 2008, Text as it happens: Literary geography,

- Geography Compass*, 2(5), 1301-1317.
- Jackson, M., 2014, Composing postcolonial geographies: Postconstructivism, ecology and overcoming ontologies of critique,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35(1), 72-87.
- Knudsen, D.C., Soper, A.K., and Metro-Roland, M., 2007, Gazing, performing and reading: A landscape approach to understanding meaning in tourism theory, *Tourism Geographies*, 9(3), 227-233.
- Saunders, A., 2010, Literary geography: Reforging the connection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4(4), 436-452.
- Sidaway, J.D., 2000, Postcolonial geographies: An exploratory essa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4(4), 591-612.
- Urry, J., 1992, The tourist gaze "revisited,"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6(2), 172-186.
- van Manen, M., 2016, *Phenomenology of Practice: Meaning-Giving Methods in Phenomenological Research and Writing*, New York: Routledge.
- Vinh, S., 2004, Ryotaro Shiba and the call for Meiji values in a global age, in Nakamura, M., ed., *Changing Japanese Business, Economy and Society: Globalization of Post-Bubble Japa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17-39.
- 한겨레신문, 2008년 4월 4일자, "한국에서 봉황만 봤다는 시바 료타로"
- 박한우 교수 홈페이지, <http://www.hanpark.net>(2018년 12월 3일 최종 접속)
- 朝日新聞出版, "司馬遼太郎街道をゆく 公式ページ(가도를 가다)", <https://publications.asahi.com/kaidou>(2018년 12월 3일 최종 접속)
- 교신 : 이동민, 25601,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가톨릭관동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ldmin1988@cku.ac.kr)
- Correspondence: Dong-min Lee, 25601, 24 579beon-gil, Beomil-ro, Gangneung-si, Gangwon-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Email: ldmin1988@cku.ac.kr)
- 투 고 일: 2018년 11월 2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3일
투고확정일: 2018년 12월 6일